

## 2017년 12월 24일 "(성탄절) 참 생명의 탄생 비밀"(빌 2:5-8)

### <도입>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품고 오신 생명의 배경과 특징이 되는 낮아짐의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생명과의 동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1] 낮아짐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탄생

**6 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낮아지셨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결핍, 실패, 수모를 똑 같이 당하는 조건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 2:17** "그(예수)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생명의 DNA가 있다면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생명이 변질되어서 낮아짐의 DNA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음, 즉 거듭나고 새 생명 얻었다는 말은 잃어버린 DNA를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낮아짐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부요해지는 길입니다. 반면 높아짐은 나 혼자 잘 될 것 같다가도 허무해지는 길입니다. 뚜렷한 대비가 있습니다.

### [2] 낮아짐 - 모든 영적 성장의 기초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에서 능력과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에 공통점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변화와 성숙,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무엇과도 다른 점은 터득하는 것(mastering)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be mastered)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잘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 아래에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변화와 발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형태의 높아짐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 야망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못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 (1)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무시/무관심하게 됨
- (2) 현재에 충실하려는 것보다 미래의 유익에만 몰두
- (3) 터득하는 것으로 영적 자랑과 주장이 높아짐 - 바리새인
- (4) 공동체의 지체됨을 잊고, 예배와 교제가 어우러지지 못함

제자는 지속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짐(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 11:28**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졌으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은 낮아지신 예수님 모습이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요한 길로 나아가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세상 어떤 사건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십자가 죽음은 위대한 사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의 선상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 [3] 낮아짐 - 유일성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축복을 뜻하죠. 어떻게 낮아짐이 축복이 될까요? 영상에서 루 홀츠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성을 담아 할 일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과 신뢰한 존재가 있는 것, 소망을 품고 나아갈 대상이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에겐 좀처럼 쉽게 열릴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성, 사랑, 신뢰, 소망은 모두 구원의 내용들로서 내가 낮아질 때만 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높아져서 축복 받았다는 신앙의 자랑 거리를 만들려는 사람은 결코 자신도, 주변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높아짐에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어떤 죄도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배워서 걸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관계 사이에 어떤 담도 허물어 화목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걸으면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길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내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걸으면 삶의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영광과 축복의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유일한 길만이 궁극적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생명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 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로의 복된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얻은 기독교의 생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가장 가치있게 생각했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2. 왜 낮아짐이 축복이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에는 낮아짐(겸손)도 포함 되었었나요?